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미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땅속에 뿌리박은 저 겨울나무 보세요”

오늘도 한자리 하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잘 아는 도의 길을 걷기 위함이니, 듣고 아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부지런히 실천해 가면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일 중에 선과 악을 어떻게 대치해 나가며, 이 마음의 도리를 어떻게 용법으로 잘 쓸 수 있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가정이나 사회나 우주도 결국 내가 근본이 되고 나로부터 벌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에 애착을 두어 주인공을 만나고자 하는 생각은 도리어 중생심을 복돋을 뿐이니 공한 도리를 알지 못함이라. 도에는 굳이 더기 하나 붙을 자리가 없다. 도는 활발하고 드높고 시원시원하다고 말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을 찾는 데는 시간이 길고 짧음이 없고 들고 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만 마음에 역경보다는 순경을, 다시 말해서 내 인위와 물질세계에만 애착을 두어 주인공을 찾다보니 잘 되지 않습니다. 스님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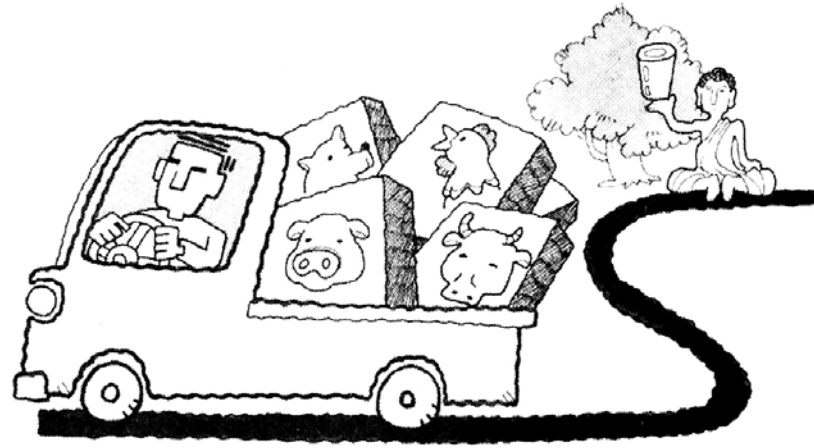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기보배 자기가 쓰지 못하면 바깥으로 꼬달리기 때문에 불편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책 · TV 보면 느낌이 와요

책이나 텔레비전 같은 걸 보고 있으면 거기에 나오는 말이나 감정에 대해 제게 느낌이 올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뜻입니다. 즉 말하자면 참자기와 자기가 상봉할 수 있는 그 막이 조금 얇아졌다는 뜻이죠.

가끔 마음이 불안합니다

저는 가끔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해결하고 싶은데 스님께서는 제 마음을 아십니까?

하하하, 딱의 마음이 알고 있으니 까 내 마음도 알고 있을 겁니다. 불안한 것도 불안하지 않는 것도 그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열심히 관하시면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역경보다 순경에 애착을...

저는 마음공부를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심자입니다. 열심히 주인공을 찾고자 했습니다만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허공에서만 맴돌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문 중에 '역경을 싫어하고 순경을 반기워하는 것은 바로 간택하는 마음이니 중생심이다. 주인공으로서의 마음은 특 터어 밝은 허공과 같아서 어떤 경계에도 집착하는 바가 없다. 고로 순경

정신계와 물질계가 돌이 아니게 통해야만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또 생각하고 말하는 이것이 한데 떨어지지 않고 법이 됩니다.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혼합이 돼서 돌아가는 지금이 시대가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악이다 선이다 하는 것도 천차만별입니다. 차원에 따라서 차례차례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악과 선 가운데 악도 내버리고 선도 내버리고 이렇게 지금 나가는 길 아닙니까? 그렇게 나가다 보면 악도 보이고 선도 보이고, 선도 행하게 되고 악도 행하게 되는 것을 통틀어 여기도 놓고 보면 나도 공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한 걸 알고 또 믿는 마음에 간절히 그 자리에다 놓고 해 나가신다면 바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선은 '참 착하구나' 하고 거기 다시 나아가 하고, 악은 흡수해서 굴러서 넘어 갑니다. 쉽게 말해서 '내 주인공과 내 주인공이 돌이 아닌 까닭에 모두가 하나로 붙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각만 해서 되는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생각이 없다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생각에서 일체 만법을 잘 다스리고 나간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훌륭한 대통령 나왔으면...

저는 요즘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치나 경제가

“보고 듣는 순간 한생각 잘하면 그게 바로 법” “편안하든 편안치 못하든 양면을 다 놓아야”

위기에 처해 있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열려가 됩니다. 대선은 눈 앞에 두고 있는데 정말 훌륭한 분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건국하게 0 끌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님, 마음 많이 내주십시오.

모든 것은 다 하나로 통합니다. 우리의 근본은 일체 만물만생과도 가설이 돼 있고 일체 제불하고도 바로 직결돼 있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우주 삼천대천세계하고도 직결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 말이나 몸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함이 없이 하라 이런 소립니다. 함이 없이 하는 도리를 알아서 그렇게 하신다면, 모두를 편안케 하는 도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한마음 속에서 들고 나는

것이니,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다 이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진리를 아신다면 심부름꾼, 즉 말하자면 국민을 편안케 이끌 수 있는 우주의 심부름꾼을 주인이 이끌 수 있도록 마음을 깊게, 자극하게 내십시오. 그러면 바깥으로 꼬달리지 않고 생활도 그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수험생인데 마음내주세요

저는 대입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수험생이라면 다 그렇겠지만 저 또한 시험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33 법 회때 '나를 버려라' 라는 스님의 법문을 듣고는 순간순간을 '내가 없다' 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험이 시험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런 두려움

도 없이 편안해졌습니다. 스님께 감사드리고요.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스님, 마음 많이 내주십시오.

마음을 제 삼자에게 내달라고 하고 기 이전에 내 마음을 스스로 내면 다 통한다는 걸 아셔야 되고. 말하자면 남한테 마음을 내달라기 이전에 내 마음을 내면 더불어 같이 내진다 이런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아니고 '생각을 내지 마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시험을 보는데 이것저것 다 버리고 어떻게 편안 하겠습니까마는 편안치 못하든 편안하든 그 양면을 다 버리는 겁니다. 놓는 겁니다. 나를 버려야 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발이 하는 거다' 한다면 나를 완전히 버리는 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없으면 몸은 송장이 되거든요. 내 몸이 없는데 어떻게 자발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몸통이는 자동차와 같고 자발은 운전수와 같다 했으니 차는 운전수를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나무로 비유한다면 저 나무들이 뿌리없이 사는 거 보셨어요? 본래 자발과 육신은 집을 삼아서 같이 있어요. 나무도 뿌리와 싹이 같이 달려 있죠. 본래 그렇게 돼 있으니 믿고 안 믿고가 없이 믿어야 돼요. 학생을 리드해 나가고 학생의 보디가드가 돼 줄 수 있고 학생을 이끌어 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고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바로 자기의 참기사니까요.

이 몸통이는 고정됨이 없이 화해서 참나찰나 나무는 까닭에 공했던 말씀입니다. 어떤 것을 할 때에 내가 했고 어떤 것을 할 때에 내가 안 했고, 이게 없다 이 소리죠. 그런 까닭에 '주인공 자발이 나의 모든 기능을 함해서 시험을 보는 거니까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잖아, 합격되게 할 수 있는 것도 너 뿐이야.' 하고 관한다면 몸과 손을 빌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외국에 유학을 갔는데 처음엔 말이 안 통해서 무척이나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전화가 왔길래 '네 주인공에 관해라. 모든 것을 거기에서 하니까 한마음으로 상대방 주인공과 네 주인공이 돌이 아니니 그렇게 관해라' 하고 알려줬어요. 모습이 나 말은 달라도 주인공 자리는 언제나 가설이 돼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간절히 관했다 봅니다. 이전 외국어도 몇 개 국어를 하면서 공부도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의 지혜로운 요량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 관하는 도리를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줘서 모두가 편안하고 밝게 사세요.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너의 주인공과 나와 돌이 아닌 까닭에 너에게도 불이 들어올 것이다. 주인공에 맡기고 열심히 하다보면 점점 좋아질 것이다' 하고 관해줄 때 거기까지 뜻이 깊어 통하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워낙 부모 말을 안듣고 속을 썩여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관하는 문구를 적어서 벽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식탁 밑에까지 깔아뉘뜨렸습니다. '어디 정말 되나 안되나 보자' 하고 말합니다. 그랬는데 그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시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지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속의 불교 (149)

머리에 불이 붙었는데 내일에 끄겠다?

"어떤 부자가 부인 넷을 두고 살다가 최후를 맞게 되었다.

첫부인에게 물기를, '평생동안 먹여주고 입혀주었으니 나를 따라 가겠느냐?' 고 했다. 대답은 거절이었다. 둘째부인에게 물었다. '당신과 함께 살기 위해 내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는데 함께 가겠느냐' 고 했다. 대답은 역시 안된다였다.

셋째부인에게는 '누구보다도 당신을 극진히 사랑했으니 같이 가자' 고 했다. 그랬더니 무덤까지만 따르겠다고 했다. 넷째부인에게 물기를 '당신을 남달리 대접한 일은 없지만 나를 따르겠소?' 하였다.

넷째부인은 잘났든 못났든 함께 살았으니 좇아 가겠다고 했다. 첫째는 육신, 둘째는 재물, 셋째는 권속이고 넷째는 업식을 말한다."

몸을 벗어도 업식은 남는다. 눈도 없고 귀도 없지 몸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살아온 차원대로의 업식은 남아서 떠돈다. 마치 앞을 못보는 장님처럼 오로지 생전의 습과 인과에 끌려다니는 것이다. 고로 생전에 축생과 같은 마음으로 살았다면 죽어서도 축생의 몸을 받고 생전에 보살같은 마음으로 살았다면 보살의 차원

대로 살게 된다. 그것은 누가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짓는대로 받는 법칙, 그것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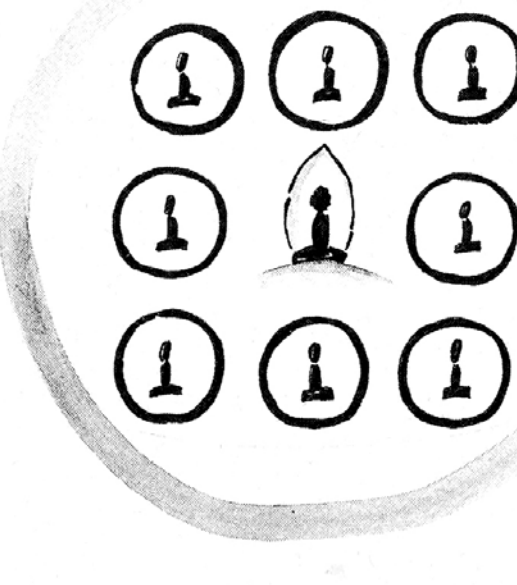
육신이 사대로 흩어져 원점으로 되돌아가도 몸이 있었던 인과로 인해 업식은 몸이 있는 줄 안다. 또 악업 선업으로 뭉쳐진 업식은 그림자처럼 따르면서 앞을 가로막고 나서기 때문에 거기에 밝아서 꿈쩍없이 노예처럼 끌려 다닌다.

그러니 불을 만나면 타죽을까 겁내고 물을 만나면 빠져죽을까 겁내는 형국이 마치 육신 있을 때와 같다. 고로 사후의 일이란 물을 것도 없다.

생전에 했던 일을 스스로 일기장에 꼼꼼히 적어 놓은 것처럼 그것이 바로 사후의 문제를 결정한다.

나를 돕는 것은 오로지 수행의 힘뿐이다. 첫째부인도 돕지를 못하고 둘째 셋째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옷을 벗을 때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데려갈 수도 없으니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무엇에 의지하겠는가. 쥐고 가지 못하고 들고 가지 못하고 먹



고 가지 못한다. 재화도 놓고가고 권력도 놓고가고 명예도 놓고간다. 가족도 버리고 간다. 갖고 나온 것이 없으니 들고 갈 것도 없다. 다만 가지고 왔고 갖고 가는 것은 생전에 시시로, 구구절절로 먹었던 마음뿐이다. 고로 마음도리를 알아야 한다. 몸 떨어지고 나면 그 차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니 육신이 온전한 때 마음을 닦아야 한다. 죽어서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란다면 살아서 극락에 들어가야 한다. 살아서 통행증을 얻어야 한다.

오늘 살아있다고 내일도 당연히 살아 있을 줄로 믿는다면 그런 착각이다. 우리는 대부분이 그런 착각 속에서 산다. 내게 내일이 없으리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당연히 내일은 밝아올 것이고 또 그다음 내일도 계속되리라 믿고 산다.

그래서 느긋하다. 오늘 못하면 내일에 하면되지 하는 그런 심정이다. 그러나 오늘 못한 것을 내일엔 어떻게 하나? 누가 그걸 보장해주나? 내가 내일에 할 수 있다면 오늘엔 왜 못하나? 오늘 하면 왜 안되나? 오늘 못한 것은 내일에도 못하기 십상

이다. 고로 시간이 없다. 느긋해질 시간이 없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한다. 마음도리를 공부하는 일은 날자 받아놓고 하는 일이 아니다. 순간순간에, 생활의 경계경계마다 해야하는 공부이다.

어차피 갖고 갈 수 없는 것이니 놓고 가라. 어차피 들고 갈 수 없으니 지금 놓고 가라.

두고 가는 사람은 고(苦)를 받지만 놓고가는 삶에 고는 따르지 않는다. 놓고가는 것은 바로 업식을 녹이는 길이다.

몸 떨어질 때 잔뜩 쪼어지고 가야하는 업식을 떨어내는 일이다.

이왕이면 흥가분한 게 좋지 않겠나? 이왕이면 업식의 그림자에 묶여서 가고 올 길을 모르기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눈멀고 귀머리 헤매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는가.

바로 오늘 마음도리를 익히지 않으면 시간은 없다. 당연히 내일이 찾아올 것이라는 느긋함은 금물이다. 그래서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급하고 급한 것이다.

협찬: 안창길